

일본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2014. 7.)

하노이 사무소

I. 일본의 對 베트남 직접투자(FDI) 개요

- 일본이 베트남 내 투자활동을 시작한 것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이 발효된 직후인 '88년이나, 일본의 對 베트남 해외 직접투자가 본격화된 시기는 '94년부터임.
- '94년~'97년 일본의 對 베트남 투자활동은 '97년 일본을 덮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춤하였으나, '03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후, 현재 일본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투자액 및 투자 이행률에서 선두에 있음.

<對 베트남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백만불)

구분 국가명	'88.1월~'14.6월 기준 누계			'14.1월~6월 (신규)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	증자금액
일본	2,313	35,747	11,540	128	439	367
대만	2,320	27,611	11,647	31	249	163
한국	3,827	31,242	9,947	216	1,140	411
싱가포르	1,284	30,544	7,849	41	559	173
버진아일랜드	533	17,651	5,743	10	244	94
홍콩	820	13,451	4,342	48	867	139
말레이시아	465	10,569	3,665	12	52	136
중국	1,037	7,853	3,084	44	146	168
태국	351	6,466	2,863	12	35	34
미국	694	10,704	2,554	12	8	128
네덜란드	207	6,395	2,550	9	65	29
전체 합계	16,589	239,773	81,546	656	4,858	1,994

*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II. 일본의 對 베트남 직접투자 특징

- (투자업종) 투자 신고건수 및 신고액 상으로 가장 많은 일본 투자가 유치된 업종은 제조·가공업임.
 - '13년 6월까지 이 업종에 신고된 일본 투자는 모두 1,101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인 투자 신고건수 2,034건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치이나, 투자액 상으로는 일본 투자액(273억불)이 한국 투자액(131억불)의 두 배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그리고 정보·통신 순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음.

- (투자형태) 베트남 내에서 일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형태는 100% 외자기업 설립으로 1,990건의 투자중 1,624건이 100% 일본 투자자본의 기업 설립이었음.
 - 일본 투자자가 100% 외자기업 설립에 투자한 총 금액은 168억이며, 이는 일본의 對 베트남 총 투자액의 51.5%에 상응
 - 두번째로 선호되는 투자형태는 합자기업 설립으로 329건의 투자가 동 형태로 이뤄졌으며, 신고된 금액은 147억불로 전체 일본 투자액의 44.9%를 차지함.
 - 일본의 100% 외자기업 설립 투자건수가 합자기업 설립 투자건수보다 5배 정도 많으나, 총 투자신고액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자기업 설립 시의 일본 투자규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투자지역)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는 63개의 투자가능 지역 중 48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투자신고액 상으로는 일본 전체 신고액의 약 30%에 상응하는 95억 불을 유치한 탕화성에서의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PetroVietnam, 쿠웨이트 석유회사, 이데미추 코산 석유회사, 미추이 화학회사의 합자로 이루어진 응이선 정유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이 지역의 일본 투자액 증가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빈즈엉 성은 일본인의 투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전체 일본 투자액의 11.7%를 유치했음.
- 투자 신고건수 상으로는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지역의 투자신고액은 각각 전체 투자액의 10.5%(3위), 9.1%(4위)를 차지하고 있음.

III. 신흥 투자처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일본 투자자의 평가

- 최근 중국 내 임금상승과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에서 비롯된 긴장상태에 대한 우려로 최근 일본 기업들 내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투자처로서 아세안 지역이 각광받고 있음.
- 아세안 지역 중에서도 베트남과 태국이 일본의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의 통계를 통해서도 일본의 對중국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본의 중국, 태국, 베트남 FDI 현황>

(백만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중 국	7,252	12,649	13,479	9,104
(증감율)	-	74%	7%	△32%
태 국	2,248	7,133	547	10,174
(증감율)	-	217%	△92%	1,761%
베트남	748	1,859	2,570	3,266
(증감율)	-	149%	38%	27%

*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일본 투자자들로부터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 낮은 생산비용, 낮은 임금과 숙련 노동자 이용 가능성 등의 요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 인프라 설비 상태, 원료 접근성, 생산 중간재 확보 가능성,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환경 투명도, 관세 절감, 행정절차의 간소화, 부정부패 방지 등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IV. 일본의 對 베트남 직접투자 향후 전망

- (투자업종) JETRO 하노이 지사는 '14년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 투자는 점차 제조·가공업에서 정보·기술업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분야로 전환될 것이라 관측
 - 실제로도 '11년에는 일본의 對 베트남 투자신고 프로젝트의 10%에 머물렀던 일본 IT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12년과 '13년 각각 11%, 12%를 기록하면서 점진적인 투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베트남 정부는 IT 분야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14년부터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중소규모의 IT 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 (투자지역)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일본 기업들은 제2, 제3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체 확대 투자지역은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 인프라 시설 상태가 양호하고 좋은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한 지역 중심의 일본인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빈즈엉, 하이퐁, 동나이, 다낭 등지가 거론되고 있음.